

태평양 전쟁 말기 요카렌(予科練)의 제주도 주둔과 위안소

—성산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윤^{**} · 고성만^{***}

- I. 들어가며
- II. 일본 해군의 제주도 주둔과 해안특공기지
 - 1. 실태 및 현황
 - 2. 구축 공사
- III. 태평양 전쟁 말기 성산 지역의 군사기지화
- IV. 제45신요대의 배치와 요카렌의 군사훈련
- V. 두 곳의 위안소
- VI.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인 1945년 봄부터 제주도가 결호 작전(決號作戰) 지역에 편입되면서 약 7만 8천여 명의 일본군이 주둔하게 된다. 미군의 제주도 상륙과 지상전에 대비하기 위해 해안에서 산악 지대에 이르기까지 섬 전역에 대규모의 방어 시설도 구축됐는데, 그 중 상당수가 현재까지 남아 있다.

* 이 논문은 2019년 3월 23일 일본군위안부연구회가 개최한 <지역과 기억을 통해 본 일본군성노예제>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학술회의에서 귀중한 논평을 해 준 김성례, 김소라, 김득중 선생님과 투고 논문에 대한 익명의 심사자 세 분께 감사드린다.

** 제1저자,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회학과 교수 (E-mail: chomin999@hanmail.net)

*** 교신저자,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회학과 조교수 (E-mail: wikigarden@jejunu.ac.kr)

일본 본토와 인접한 성산 지역 역시 본토 결전이 본격화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화기와 병력도 집중됐다. 그 과정에서 자폭용 병기인 신요(震洋)와 제45신요대(震洋隊) 소속의 요카렌(予科練) 생도들이 배치됐고 위안소가 설치·운용되기도 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전쟁 말기 성산 지역의 상황을 현지 조사와 목격자 인터뷰, 사료 분석을 통해 실증하는 것에 있다. 조사 결과, 성산 지역에 총 19개소의 군 관련 시설이 파악됐는데, 그 중에는 위안소 두 곳의 존재도 확인됐다. 위안소의 상황을 목격했던 성산 주민은 당시 이 지역에 주둔했던 육·해군 가운데서도 오직 요카렌만이 유일하게 위안소를 이용했고, 그들이 ‘단추가 일곱 개 달린 멋진 군복을 입고’ 위안소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던 장면을 푹푹히 기억하고 있었다. 제주도에 일본군 위안소가 존재했다는 조사 결과나 연구가 아직 학계에 발표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학술적, 사회적 의의는 자못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성산 지역의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 조사의 과제를 남기고 있다. 또한, 일본 제국권 내에 신요대가 주둔했던 지역에서 위안소가 어떠한 양상으로 운용됐었는지에 대한 비교 연구도 추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요카렌, 신요, 성산, 위안소

I. 들어가며

이 논문은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인 1945년 4월, 일본 해군이 제주도 동부의 성산 지역에 구축했던 군사 시설에 대해 현지 조사와 목격자 인터뷰, 사료 분석을 교차하며 실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일본 본토 방어를 위한 결호 작전(決號作戰)에서 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부상되면서 성산 지역이 빠른 속도로 기지화 되고, 자폭 병기와 대원들이 실전 배치되는 과정에서 위안소가 설치·운용됐던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일본군은 미군의 제주도 상륙과 지상전에 대비하기 위해 해안에서 산악 지대에 이르기까지 섬 전역에 대규모의 방어 시설을 구축했는데,

그 중 상당수가 현재까지 남아 있다¹⁾. 이에 대해 2005년부터 실시된 <일제하 제주도의 일본군 전적지 조사 연구>에서는 당시 일본군이 구축했던 비행장과 지하호, 격납고 등 관련 군사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가 파악됐고, 그 과정에서 강제 동원됐던 노동자들에 대한 면담 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²⁾. 그러나 기존의 <전적지 조사 연구>는 군사 시설 위주의 현황 파악이 주된 목적이었던 탓에 전쟁 말기에 전황이 악화되고 해당 지역이 급속하게 기지화되는 과정에서 드러났던 문제적 현상들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분석이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점에서 이 논문은 <전적지 조사 연구>가 남긴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 작업으로서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일본 본토와 가장 가까운 성산 지역 역시 결호 작전이 본격화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화기와 병력도 집중됐다. 특히 육·해군의 주둔과 함께 ‘신요(震洋)’라는 폭탄을 탑재한 자폭용 보트가 배치되면서 성산 일출봉 해안가에 갯도 진지를 조성하는 작업이 1944년 겨울부터 1945년 4월까지 진행됐다.

이 논문은 1945년 4월 성산 지역에 신요 부대가 도착, 주둔하기 시작한 시기부터 전쟁이 끝나고 철수할 때까지 그들의 활동을 목격했던 주민 4명과, 이 지역의 전후(戰後)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주민 2명에 대한 면담 조사를 토대로 한다.³⁾ 특히, 성산 지역에 주둔했던 제

- 1) 2000년 이후 그 중 일부가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2002년 5월에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의 비행기 격납고가, 2006년 12월에 알뜨르 비행장의 지하병커를 비롯한 12개소의 일본군 전쟁유적이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제주도에 일본군들이 남겨 놓은 전쟁시설이 언론의 조명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이처럼 한꺼번에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처음이었다. 지하 갯도가 미로처럼 얽혀 있는 한경면의 가마오름 유적지에도 2004년 평화박물관이 개관하여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다.
- 2) 연구결과는 조성윤·지영임·허호준(2007), 조성윤(2008a, 2008b), 제주역사문화진흥원(2008, 2009, 2011, 2012, 2013) 등에서 소개하고 있다.
- 3) 면담에 참여해 주신 주민들의 정보와 면담 일시 및 장소는 다음과 같다.

이름	성별	출생연도	면담 일시 및 장소
오시중	남	1929년	2010년 6월 16일 및 12월 28일 구술자의 자택, 2011년 1월 26일 성산리 마을회관, 2019년 4월 18일 성산리 내 음식점
신영춘	여	1932년	2010년 12월 28일 구술자의 자택

45신요대(震洋隊)의 군사 시설 및 위안소, 병사들의 훈련과 일상생활을 근거리에서 관찰했던 주민 오시중의 기억과 증언은 태평양 전쟁 말기 성산 지역의 상황을 목격자의 시선에서 재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당시 나이가 어려 군대에 징집되거나 노동력으로 동원된 적이 없었다. 그는 1945년 4월경 자신의 집에서 30미터도 채 되지 않은 곳이 군에 접수되어 위안소로 사용됐기 때문에 삼엄한 경비 속에서도 위안소에 드나드는 군인들과 그곳 여성들의 움직임을 지켜볼 수 있었다.

그동안 제주도에 위안소가 있었다는 연구가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 없기 때문에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은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복수의 목격자 면담과 현장 확인, 그리고 일본측 사료를 교차 분석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Ⅱ. 일본 해군의 제주도 주둔과 해안특공기지

1. 실태 및 현황

전황이 악화되자 일본 해군은 1944년부터 미군의 일본 본토 공격에 맞서기 위해 각종 특공 병기(特攻兵器)를 제작하여 실전 배치했다. 특공 병기는 카이텐(回天)이라 불리는 어뢰정과 신요(震洋)라 불리는 베니어 보트가 주종을 이루었다. 모두 폭탄을 장착한 채로, 선발된 해군 병사가 직접 조종하여 최종적으로는 미군의 함정을 향해 돌진, 충돌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해군은 이 자폭 병기를 조종하여 미군 함정에 돌격할 탑승원으로 요카렌(予科練)⁴⁾ 생도를 재훈련 시켰다.

현원조	남	1926년	2010년 12월 28일 구술자의 자택
오은자	여	1929년	2010년 12월 28일 구술자의 자택
오기병	남	1934년	2011년 1월 6일 구술자의 자택
한천복	남	1951년	2010년 12월 28일 및 2011년 1월 26일 성산리 마을회관

4) 요카렌은 ‘해군비행예과연습생(海軍飛行予科練習生)’의 약칭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항공기의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서구 열강에 뒤처질 수 없다

요카렌은 대부분 20세 전후의 젊은이들로 구성됐다. 당초 14~17세의 청소년들을 선발했는데, 주로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훈련을 받았다. 비행사가 부족했던 전쟁 초기에는 조종사 양성이 큰 과제였다. 그러나 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보유하던 비행기가 미군의 공격을 받아 거의 다 떨어지고, 미군에게 제공권을 완전히 빼앗겼다. 그 이후부터는 비행훈련을 받았던 젊은이들이 갈 곳이 없어졌다. 일본 해군은 그들을 자살 공격을 감행할 자폭 병기의 조종사로 활용하였다. 그렇게 전쟁 말기에 요카렌 생도들이 카이텐이나 신요를 조종하는 훈련을 받게 됐던 것이다.

일본 해군은 미군의 제주도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 신요대를 전략 배치시켰다. 신요대는 모두 제146개의 부대로 편성되었는데, 각 부대원이 180~200명 규모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모두 2만에서 3만 사이의 병사들로 구성되었다. 이 부대들은 일본 전역에, 그리고 대만과 오키나와를 비롯하여 제주도에도 3개의 부대가 배치되었다.

신요의 특성상 특공정을 숨겨두기 위한 갯도 진지는 모두 해안가에 구축되었다. 조성윤(2008a, 2008b)과 제주역사문화진흥원(2008, 2009)에 따르면, 일본 해군이 구축한 해안특공기지는 성산 일출봉 해안과 고산 수월봉 해안, 서귀포 삼매봉 해안, 조천 서우봉 해안, 대정 송악산 해안 등 5개소가 확인된다. 모두 각각 10~20개의 갯도 진지가 해안에 남아 있는데, 내부는 70~80% 정도가 현재까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지만, 입구는 함몰된 경우가 많은 상태이다. 갯도 진지를 구축할 당시에는 갯도 입구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유도로(誘導路)가 시멘트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모두 파도에 휩쓸리면서 부서져 흔적 일부만이 확인되는 정도이다. 그 중에서 수월봉의 갯도가 가장 많이 파손된 상태이다.

는 발상에서 일본 해군은 1930년부터 요카렌을 모집했다. 14~17세의 소년들을 각지에서 시험을 통해 선발했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약 24만 명이 입대했고, 그 중 약 2만 4천명이 요카렌 양성 과정을 거쳐 전장으로 보내졌다. 그 가운데 약 80%에 이르는 1만 9천명이 전사했다. (予科練平和記念館, 『予科練平和記念館年報』, 2012, 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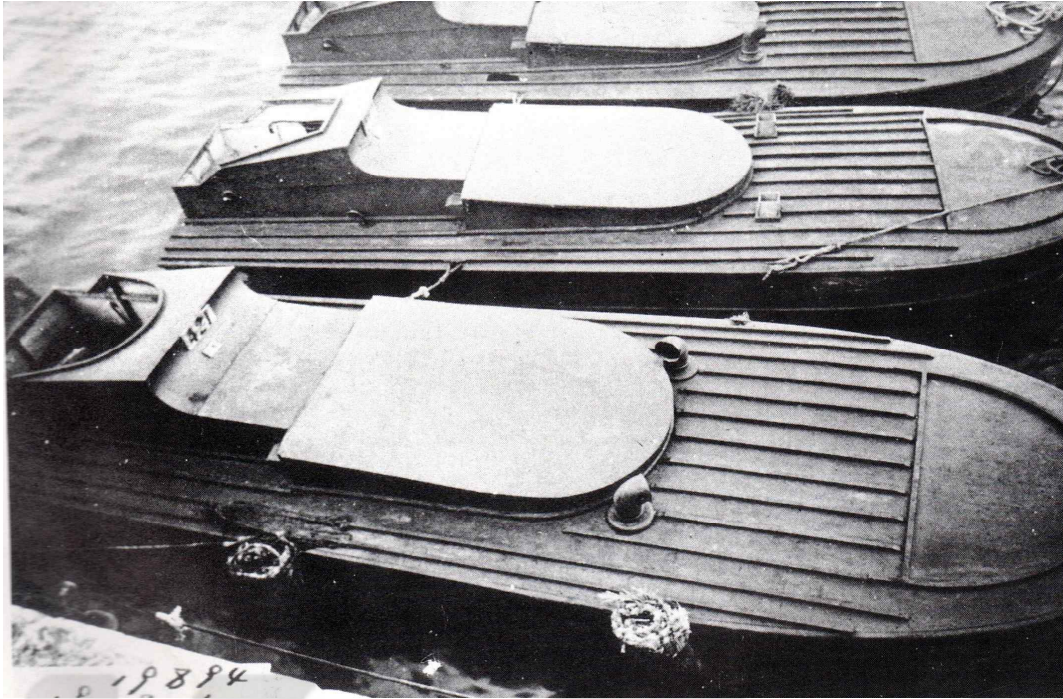
5개소 가운데 갯도 진지의 완성도가 높고 주둔 부대의 성격이 명확히 파악되는 곳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일본 해군의 해안특공기지와 주둔 부대의 특징

지역	성산 일출봉 해안	서귀포 삼매봉 해안	고산 수월봉 해안
주둔 부대	제45신요대	제119신요대	제120신요대
별칭	무라야마 부대 (村山部隊)	다나카 부대 (田中部隊)	오노 부대 (小野部隊)
인원	188명	187명	191명
신요 유형	신요정(震洋艇) 1형 50척	신요정 5형 26척	신요정 5형 26척
갯도수	18개	12개	10개
숙소	장교는 민가를 빌려 사용. 사병은 급조한 막사 6동을 이용.	갯도 절벽 위에 주거용 막사 설치	한림면 민가 및 고산소학교 사용

震洋會(1990)와 奥本(2013)에 따르면, 성산 일출봉 해안과 고산 수월봉 해안, 서귀포 삼매봉 해안의 갯도 진지는 해군 수상 특공정(海軍水上特攻艇)인 신요(震洋)를 숨겨 놓기 위해 구축한 특공정 비닉호(特攻艇秘匿壕)임을 알 수 있다. 震洋會(신요회)는 신요대 출신으로 구성된 전우회인데, 그들이 남긴 기록에서 위 세 지역에 신요대가 주둔했던 사실이 확인된다⁵⁾.

5) 第五十六震洋隊隊員有志(2004), 이완희(2014) 역시 1945년 4월 3개 부대가 제주도 배치된 사실에 대해 적고 있다.



〈그림 1〉 1형(型) 진양장⁶⁾. 고산, 서귀포와 달리 성산 지역에는 이 기종이 배치됐다.



〈그림 2〉 성산 일출봉 남서측 사면 일대 해안가에 구축된 갯도 진지(2011년 3월 30일 필자 촬영).

6) 震洋會, 1990a, 『寫眞集 人間兵器 震洋特別攻撃隊 上巻』, 国書刊行会, 27쪽.

제주에는 <표 1>의 3개 지역과 유사한 형태의 해안 갯도 진지가 조천 서우봉과 대정 송악산에서도 확인된다. 조천 서우봉 해안의 갯도 진지는 규모와 구조, 특징이 표1의 세 지역과 비슷하지만, 실제 해군이 주둔했거나 신요가 배치됐던 기록이 없고, 갯도 진지 역시 종전까지 미완성 상태였다. 대정 송악산 해안에 있는 갯도 진지 역시 1945년 8월 시점까지 미완성 상태였다. 송악산 갯도의 내부 직경은 다른 4개소 보다 훨씬 길어 10m 이상인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신요가 아닌 동체 길이가 14~16m에 이르는 카이텐을 숨기기 위한 목적에서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5개소의 해안 갯도 진지 중 일반인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은 송악산 해안에 구축된 것인데, 파도에 의한 침식으로 갯도 진지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특히 갯도 진지와 송악산을 연결하는 도로가 올레 10코스로 편입, 개발되면서 천정 부분이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해 문제가 되었는데, 이로 인해 현재는 갯도 진지에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밖에 일출봉과 서우봉, 그리고 수월봉에 위치한 갯도 진지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해 있다.

제119신요대의 거점 지역이었던 삼매봉 해안가의 진입로에는 ‘황우지 12동굴(日本軍陣地窟)’이라는 제목의 안내 팻말이 세워져 있다⁷⁾. 그러나 갯도 3개소의 입구부가 붕괴되어 현재는 9개소만이 확인된다. 또, ‘回天’이라는 자폭용 어뢰정을 숨기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설명이 있는데,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삼매봉의 갯도 진지는 대부분 해안에서 밀려들어온 자갈이 입구부터 1/3 가량 쌓여있는 상태이다.

7) 안내 팻말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은 제주를 통한 미군의 일본 본토상륙에 대비하여 제주도에 7만5천에 이르는 관동군을 배치하고, 제주전역을 요새화한다. 이 작전이 이른바 ‘결7호작전’이다. 이 곳 황우지 해안에 있는 12개의 갯도는 당시 일본군이 미군 상륙에 대항하기 위한 回天이라는 자폭용 어뢰정을 숨기기 위해 만든 것으로 동굴이 하나로 통하게 엮여져 있다. 제주 전역을 요새로 만드는 일에는 제주 사람들의 피를 말리고 뼈를 깎는 고통이 뒤따랐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구축 공사

1945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제주도에 약 7만 8천여 명의 일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다. 육군 58군 사령부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밑에 제111사단, 제121사단, 제96사단, 제108여단, 그밖에 포병대 등 각종 특수부대가 배치되어 미군과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처럼 많은 병력이 제주도에 집중된 것은 일본군 사령부, 즉大本營(大本營)이 수립한 본토 결전(本土決戰) 작전 때문이었다.

이 병력은 모두 육군이었고, 대부분 1945년 3월 이후에 제주도에 들어왔다. 그 이전에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해군이 제주도 작전의 주체였다. 특공정 비닉호 구축 역시 해군이 주도했으며, 신요대의 배치는 같은 해 4월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신요대가 배치된 4월에도 특공정을 숨겨 놓을 갯도는 여전히 미완성 상태인 곳이 대부분이었다.

1944년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제주도에 해군 특공대를 배치하기로 계획이 세워지고,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공사가 시작된 것 역시 1944년 말이라고 생각된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공사가 시작된 곳은 성산 일출봉이었다⁸⁾.

해안특공기지 5개소의 구축 공사는 모두 일본 해군 시설부가 담당했다. 조사 과정에서 당시 공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조선인 노동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내용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해안 특공 시설의 건설 계획을 수립한 것은 해군 시설부 203부대이고, 공사의 지휘감독은 시설부 소속 군인들이 직접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일본의 건설 및 토목회사들이 담당했다. 다이너마이트를 다룰 줄 아는 기술자는 전라남도의 탄광에서 모집해왔고, 하급 노동자는 행정기관을 통해 제주도내 각 마을 주민들을 동원했다. 일본군 병사들이 직접 동원되어 굴착했던 다른 지역의 지하호나 각종 토치카들

8) 조성윤, 「알뜨르 비행장-일본 해군의 제주도 항공기지 건설 과정」, 『탐라문화』 41호, 2012.

과는 달리 해군이 담당하던 지역은 일본 토목회사를 통해서 민간인이 굴착 작업에 동원됐다. 광양광산에서 일하다가 동원되었던 장한중(남, 1922년생)의 증언을 들어보자.

결혼은 1943년에 했고, 제주 간 건 45년 정월달에 갔어요. 그때는 전시 시대가 되가지고, 왜놈들이 광산 종업원들을 전부 노동자로 데코 갔어요. 그래서 우리 광양 광산에서 800명이 동원이 됐는데. 1차, 2차, 3차로 갔는데 나가 1차로 갔어요. 그때는 여수서 군함으로 갔는데. ... 여기서 제주 가는디 4일이 걸렸어요. ... 성산포는 뽕 돌리가 바다인디 전부 옆이 절벽 이거든. 거기다가 뽕뽕 돌려 구녕을 파는 거라. 터널을. 광산 사람들이 구녕을 잘 뚫은게 전부 광산이라. 북한 광산 사람도 다 소집했거든. 그래가꼬 서귀포로 가고 저 끝에 모슬포로 가고, 제주 시내 성 내로 가고, 그래서 우리는 작업한 건 뭇고 하니 이 산, 물하고, 산하고 딱 지경에 딱 맞춰 가꼬, 물이 만조가 되면 딱 그 근처까지 닿게 되면 그 발로 구덩을 파고 들어갔어. 거기다가 뭐라고 하나면 요새 리어카 같은디, 요만한 바퀴가 두 개가 붙었어요. 그 놈을 구멍에 전부 숨겨 놓는 거라. 뽕뽕 돌면서 왜말로 교라이뽕(魚雷艇)이라고 하는디. ...그 굴이 한 굴이 아마 한 7m 그 정도 깊이 안 들어갔어요. 그걸 인자 교라이뽕(魚雷艇) 밑에 리어카를 딱 수평해서, 물이 들면 딱 수평이거든. 근디 거그서 한 10m는 비삭허니 물 3m 깊이 정도까지는 공구리를 한다고. 그래가꼬 좀 왔다 그러면 쪽 밀어버리면 빠져 부러. 어디 가면 물이 이시니께 ... 우리가 맡은 굴이 17칸가 돼.⁹⁾

장한중은 광양광산에서 화약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광양광산에서 일하던 광부, 화약 기술자들과 함께 제주도로 보내졌다. 그들은 여수에 모여 일본 군함과 목선을 타고 서귀포항을 통해 들어왔다. 당시 동원되었던 광산 기술자들은 광양군 옥룡면의 광양광산을 비롯하여 다른 전남지역의 금은동광 기술자들도 있었다.¹⁰⁾

9) 장한중과의 면담은 2009년 2월 6일 황석규가 자택을 방문해서 이루어졌다.

10) 일본 아사다(淺田) 화학공업(주)이 운영하던 해남 옥매 광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대부분 해남군 문내·황산면에 살던 이들이었는데, 1945년 3월 하순께 제주도로 강제 동원됐다. 그들은 제주 모슬포 인근 지역과 구좌읍 해안 동굴, 산방산 등지의 군사시설물 구축 공사장에 투입됐다(『한겨레신문』 2012년 1월 9일 자).

서귀포 삼매봉 해안의 특공 기지는 성산 일출봉의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시작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삼매봉에 동원됐던 오경성(남, 1930년생)이 진술한 당시 작업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45년 3월경 그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갯도 굴착 작업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작업은 군인들과 경북 출신 노무자들이 했고, 제주도 노무자들은 갯도 진지 앞 축항공사를 주로 했으며, 돌이나 시멘트 등을 운반하는 작업도 했다. 밀물이면 작업을 하지 못해서 썰물 때만 작업했는데, 갯도 진지 내부에는 보트에 바퀴달린 배를 넣어두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암반이라 공사의 진척이 느려 다 완성하지 못하고 해방되었다. 동굴 양쪽에 큰 갯목을 세우고, 바닥에는 마루를 깔고, 3층으로 천장을 고정시켰다. ㄷ자로 휘어진 쇠목으로 갯목을 서로 고정시키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당시 오경성이 작업했던 곳은 지금의 삼매봉 해안이 아니라 그 보다 동쪽에 위치한 현재 '칠십리교' 인근의 해안 지역이었다¹¹⁾. 1945년 4월말 다나카(田中) 부대의 본부중대가 도착해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그 지역은 신요정을 감추어 놓았다가 유사시에 출동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됐다. 그 결과 공사를 중단시키고, 현재의 위치, 즉 삼매봉 해안의 '항우지 12동굴'이라 불리는 쪽으로 변경하였다. 갯도 바로 위쪽으로는 현재 감굴 과수원으로 활용되는 평지가 있다. 마을 주민들은 다나카 부대가 이곳에 텐트를 치고 주둔했었다고 증언한다.

Ⅲ. 태평양 전쟁 말기 성산 지역의 군사기지화

일본인들은 제주읍은 물론 한림, 서귀포, 대정 모슬포와 함께 성산포에 진출하여 집중 거주하고 있었다. 일출봉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취락이 형성된 성산 지역은 일제 시기 제주도에서도 손꼽히는 일본인 거주

11) 그 위쪽으로 '프린스 호텔'이 들어서 있었으며, 그 후 '한국SGI 연수원'으로 바뀌었다.

지역이었다. 당시 제주도에 들어온 일본인들은 대부분 야마구치현(山口県), 나가사키현(長崎県), 가고시마현(鹿児島県) 등의 어촌 출신으로 제주도에 들어와서도 수산업 관련 활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직접 배를 가지고 들어와 조업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조개를 가공해서 만드는 단추공장이나 통조림공장, 감태공장 등 다양한 수산업 관련 제조업도 들어와 있었다. 일제 말기 성산포 일대에도 단추공장을 비롯하여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여러 제조 가공업체들이 있었고, 일본인이 직접 경영하는 주택과 여관, 식당 등이 있었다¹²⁾.

본토 결전을 위해 육군 제58군 사령부가 설치되고 예하 부대들이 제주도에 들어와 집중 배치된 것이 1945년 3월부터였다. 하지만 일본 해군은 식민지 지배기 내내 제주도를 자신들의 수비 관할구역으로 삼고 있었으며, 우도에도 경비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다. 그런 해군이 본토 결전 준비를 위해 1944년 12월부터는 성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안 특공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주둔지로 결정한 곳은 성산 일출봉 해안이었으며, 이어서 서귀포의 삼매봉과 고산의 수월봉 해안이 후보지로 정해졌다.

12) 성산리 마을회, 『城山浦誌 해뜨는 마을』, 2004, 353-365쪽.



〈그림 3〉 일제 말기 성산 지역에 구축됐던 군 관련 시설(필자 작성).

<그림 3>은 일제 말기 성산 지역에 설치됐던 육·해군 시설을 비롯하여 특히 제45신요대 관련 시설을 주민들의 증언과 현지 조사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총 19개소의 유의미한 지점이 파악됐는데, <표 2>와 같이 시설별 구분이 가능하다.

<표 2> 일제 말기 성산 지역에 구축됐던 육·해군 관련 시설

	육군 관련 시설	해군 관련 시설	기타 시설
시설명	⑭진발 육군 주둔지역 ⑲/⑳전파 탐지 관련 시설	④노무자용 함바 ⑥신요 거치 장소 ⑦위안소1 ⑩위안소2 ⑪신요 폭파 장소 ⑬진발 해군 주둔 지역 ⑯신요 특공정 비닉호 ⑰신요 훈련 구역	①감태·툇 가공공장 ②통조림 공장 ③감태 가공공장 ⑧명월관 ⑨일출여관(日出旅館) ⑫발전소 ⑮신사 ⑱기계실
소 계	3개소	6개소	10개소

특이한 점은 해군 관련 시설의 수가 육군에 비해 훨씬 많고, 그 중에서도 제45신요대 관련 시설이 주민들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는 점이다. “성산포에서 육군을 봤던 기억은 잘 안 나네. 주로 해군을 만난 것 같으니까”(오기병, 남, 1934년생)와 같은 증언이나 ‘요카렌’, ‘보트’, ‘나나츠 보탄’과 같이 제주도내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서는 듣기 어려운 군사 용어를 성산 주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그림 1>과 <표 2>을 통해서는 성산 지역 내에서도 일출봉을 주변으로 한 해안가에 해군 관련 시설이 집중 배치돼 있었고, 일출봉 남서쪽 해안을 따라 배치된 제45신요대 관련 시설 또한 확인할 수 있다. 두 군데로 확인되고 있는 위안소 역시 제45신요대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IV. 제45신요대의 배치와 요카렌의 군사훈련

제주도에 주둔했던 신요대는 진해경비부(鎭海警備府) 소속 제45, 119, 120신요대였다. 세 부대는 성산환(城山丸)이라는 수송선을 통해 제주로 배치됐다. 그들은 이 배로 4월 6일 일본 사세보(佐世保) 항구를 떠나 이틀 뒤인 8일 성산포에 도착했다. 그 가운데 제45신요대는 성산 일출봉에, 제119신요대는 서귀포 삼매봉에, 제120신요대가 고산 수월봉 해안에 배치된다. 부대를 관할하는 책임자의 이름을 따서 각각 무라야마(村山) 부대, 다나카(田中) 부대, 오노(小野) 부대라고 불리기도 했다. “濟州島 海軍部隊의 司令으로서 海軍報道部로부터 浜田少佐 着任”¹³⁾이라는 기록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세 지역 중에서 본부는 성산 지역이라고 생각된다.

제45신요대가 도착한 성산포에는 숙식을 할 수 있는 막사도 준비되지 않았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교는 민가를 빌려서 숙식을 했고, 병사들은 시설부가 급조한 띠로 만든 병사(兵舎) 5, 6동에 나누어 주둔했다.

신요 보트를 격납시킬 갭도 진지 역시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였다¹⁴⁾. 신요대가 배치된 후에도 해군시설부가 조선인 광산 노무자 2~3백 명을 동원해서 밤낮으로 작업한 결과 가까스로 4월말에 공사를 마쳤다. 그러나 동굴 내부의 습기 때문에 전기 계통에 고장이 자주 일어나고, 문제가 많아 결국은 보트의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 불능 상태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2정대(艇隊)와 4정대가 가지고 온 신요 1형(型) 50척을 별도의 장소로 옮기고, 나머지는 일출봉 옆 해안 모래밭에 뒤집어 놓고 그 위에 각종 위장을 하여 거치시킬 수밖에 없었다. 미군의 마틴 쌍발기(マーチン双発機) 2대로부터 총격과 폭격을 당한 적이 있지만, 큰 피해는 없었다.

13) 震洋會, 『寫眞集 人間兵器 震洋特別攻撃隊 上巻』, 国書刊行会, 1990a, 96쪽.

14) 奥本剛, 『陸海軍水上特攻部隊全史 - マルレと震洋, 開発と戦いの記録』, 潮書房光人新社, 2013, 112쪽.

제45신요대가 도착할 당시 성산포에는 해군 시설대 뿐만 아니라 이미 육군 부대도 주둔해 있었다. 당시 상황을 오시종의 증언을 통해 살펴보자.

해군들은 ‘무라야마 부파이(村山部隊)’라고 해 가지고 처음에는 몇 사람이 안 왔어요. 나중에 굴을, 시설을 하는 과정에다가 보트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그 ‘요카렌(予科練)’들이 오기 시작하대요. 그니까 지금 그 ‘요카렌’들도 병사를 짓지 못해 가지고 소나무 잘라다가 임시 막사를 만들어가지고 지냈거든요. 저쪽으로 가게 되면은 지금 (성산일출봉의) 주차장 하는데, 절간 들어서 가지고 주차장 이쪽에다가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바로 그 장소에 ‘요카렌’들이 주둔합니다. 일출봉에는 전파탐지기 부대가 있었고 만군, 그 만주에서 내려온 군인들이 부락에 상주되어 있었고 여기에도 한 3개 부대 정도가 따로따로 주둔되어 있었죠.

당시 성산 지역에 들어온 육군은 제108여단 예하 부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대는 재소집병들로 구성된 일종의 예비군 부대로 평균연령 40대가 주축이었고, 1945년 초에 급조된 부대였기 때문에, 소총 이외에는 별다른 무기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이 육군 병력은 이를테면 물을 길는다든지 하는 온갖 잡일을 도맡아 하고, 보초를 서거나 신요 보트를 지키고, 요카렌 생도들이 훈련을 할 때는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비를 서는 역할이 맡겨졌다.

반면 새로 도착한 제45신요대는 신요의 실전 훈련에만 전념하였다. 신요대 병사들은 모두 요카렌 출신으로 20세 전후의 젊은 청년들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상하의 일체형의 훈련복을 착용하고 매일 조를 편성해서 신요 보트에 올라 일출봉 일대 해안에서 훈련을 받으며 미군의 상륙에 대비하고 있었다. 훈련은 신요 보트를 굴속에서 꺼내 바다로 이동시킨 다음, 그것을 탑승조가 타고 나가서 가상 적 군함에 돌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시 오시종의 증언을 들어보자.

물이 없어 노니까 우물물을 길어 나르는 것도 일반 병사들이 길어 날렸거든요. 그런데 그 요카렌들은 단지 훈련만 받지 그런 잡일은 하질 안해.

보트를 맨들 적에도 요카렌들은 손을 안대요. 하여튼 훈련할 때만 앉아 가지고 허는 모양이에요. 그 부대가 따로 있어요.

보트가 굴 속으로 이동을 했다 하면 그때부터는 요카렌들이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보트를 굴속에) 전부는 못 집어넣었어요. 보트를 운반하는 구미(組)가 있고, 타서 나가는 구미가 있고, 일출봉에서 나가면 저 섬지코지까지 몇 바퀴 돌아가지고 오고 이렇게 했어요. 훈련하는 모습을 일체 보지 못 허도록 했지만은 우리는 뭐 보초서는 경비들하고 친하니까 쫓그려 앉아가지고 훈련하는 거 구경했지요. 그렇게 갔다왔다 갔다왔다 하면서 훈련들을 하는 모양이에요.

108여단 소속의 육군 병사들과 비교할 때, 신요 보트에 탑승하여 훈련했던 요카렌 생도들은 특별한 대접을 받는 존재였다. 그들에게는 일체의 잡일이 주어지지 않았다. 잡일은 모두 육군 병사들의 몫이었다. 해안의 굴을 파는 작업도 모두 시설부와 조선인 노동자들의 몫이었다. 요카렌 출신 병사들은 미군이 나타났을 때 몸을 던져 죽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오로지 그 일에만 전념하도록 대접해주는 것이었고, 따라서 평소에 그들은 매일 매일의 훈련이 가장 중요한 일과였다.

그런 그들에게 휴일에 위안소에 가도록 허용하는 것 역시 커다란 특권이었을 것이다. 이 병사들이 주말, 휴일이 되면 제복을 갖추어 입고, 나들이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 “마을이 작고 어디 놀 데가 없었단”(오시중) 성산에서 그들이 유일하게 줄을 서 기다리던 곳이 바로 위안소였다.

V. 두 곳의 위안소

위안소를 이용했던 것은 제45신요대 소속 장교들과 요카렌 생도들이었다. 오시중은 그들을 “나나츠 보탄”(七つボタン, 7개 단추)으로 기억하고 있다. 요카렌 생도의 제복에는 앞부분에 7개의 단추가 달려 있었는데

데, 이것은 그들의 상징과도 같다¹⁵⁾. 위안소를 이용하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던 그들 제복의 7개 단추가 70여 년이 지난 오씨에게도 선명하게 기억되고 있었다.

요카렌들은 인원이 그다지 많질 않고,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은, 결국은 위안소들 차려 가지고, 다들 정장들 입고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시리 허는 거 많이 봤지요.

오시중에 의하면, 성산 지역에서 운용됐던 위안소는 두 곳이었다. 한 곳은 일반 민가를 개조하여 사용됐고(위안소1), 다른 한 곳은 일본인이 운영하던 여관이 사용됐다(위안소2).



〈그림 4〉 위안소1(〈그림 1〉의 ⑦). 우측 뒤편으로 성산 일출봉이 보인다. ㄱ자 형태의 위안소 건물이 현재는 1자형(녹색 지붕)으로 남아 있다. 지번은 성산리 143-100이다. 2019년 4월 18일 필자 촬영.

15) 요카렌의 대명사로 불리는 ‘나나츠 보탄’은 세계 7대륙, 7대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거기에는 요카렌 생도들이 전세계 하늘을 누비며 활약하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있다(子科練平和記念館, 『子科練平和記念館年報』 第1号, 2012, 6쪽). 2010년에 개관한 요카렌평화기념관(子科練平和記念館) 역시 ‘입대(入隊)-훈련(訓練)-심정(心情)-비상(飛翔)-교류(交流)-궁박(窮迫)-특공(特攻)’ 등 이들의 ‘나나츠 보탄’ 제복을 모티브로 한 7개의 상설 전시실이 구성되어 있다.



〈그림 5〉 위안소2(〈그림 1〉의 ⑩). 당시의 위안소 건물은 철거되어 현재는 공터로 남아 있다. 지번은 성산리 139-20이다. 2019년 4월 18일 필자 촬영.

위안소1은 당시 오시종의 거주지에서 30미터도 채 되지 않는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위안소의 외관과 그곳의 여성들, 그리고 휴일이면 위안소 앞에 늘어섰던 ‘나나츠 보탄’의 모습을 자주 엿볼 수 있었다고 한다. 먼저 오시종의 집과 가까웠던 위안소1에 대해 들어보자.

거기가 ㄱ자로 된 집이었는데, 일본군들이 다 돌아가고 난 후에 한 번 들어가 보니까 방이 한 7, 8개 정도 있었어요. 한 7, 8년 전(2002년경-필자 주)까지는 그때 그 집이 온전히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정리를 해 버렸지요.

위안소1에서 동북 방향으로 불과 백 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위안소2의 상황도 오시종의 기억 속에 뚜렷하게 남아 있다.

거기는 원래 초가집이었어요. 그때는 우리 키 만큼 한 담이 있었는데, 또 그 위로 담을 세 단 더 쌓았어요. 밖에서는 완전히 보이지 않게. 길 건너편이 일출여관이라고, 히노데료칸(日出旅館)이라고 했지요. 나카무라(中村)라는 사람이 운영하던 여관이었는데, 초가집도 그 사람 건물이었어요. 거간(위안

소2) 여관이 아니고, 나카무라가 개인적으로 종업원들을 투숙시켰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을 다른 데로 옮기고 위안소로 만든 거지요. 초가집 지붕에 입구를 갈대로 둘러 쳐서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게끔 막았어요. 여관 주인이 가지고 있던 초가집을 위안소로 징발한 것 같아요.

오시종에 따르면, 위안소를 드나들던 이들은 요카렌 뿐이었다고 한다. 그는 위안소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던 그들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요카렌 외에는 거기 줄 서는 것을 못 봤어요. 오로지 요카렌만. 매일 다녔는지 아니면 가는 날을 정해서 다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쉬는 날 오후 되면은 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 부근에는 동초가 서 있었으니까 우리는 멀리서나 보지 가까이서는 못 보고요. 그 앞에서 정렬을 해가지고 서 있더라고요.

요카렌들이 훈련할 때는 스즈키복을 입거든요. 그런데 거기 올 적에는 '나나츠 보탄'을 입고 온단 말이에요. 가끔 마을에서 '나나츠 보탄' 입은 거 봐지면 '아 오늘은 위안소 가는 날이구나' 생각을 하지요. 거기 말고는 이 동네에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구경할 데도 없었고 또 주위에는 헌병들이 있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도 못했을 거거든요.

한편, 같은 시기 제주도 서쪽 끝 고산에서 촬영된 요카렌 생도들의 사진(<그림 6>)은 반대편 성산에서 운용됐던 위안소와 오시종의 기억을 이해하는데 시사점을 준다. 고산에 주둔했던 제120신요대의 정대장(艇隊長)이었던 무리카미 츠기오(村上次男)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도내 타 부대(제45, 제119)의 기지 및 주변 민가의 상황과 비교할 때, 매우 열악했기 때문에, 탑승원을 비롯한 부대원이 여기를 보낼만한 곳이 없어서 불쌍하기도 했었다. 반면, 대원들 사이에는 여러 측면에서 관계가 대단히 돈독해졌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전후 이후 현재까지 다른 부대에서는 보이지 않는 관계가 지속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¹⁶⁾



〈그림 6〉 1945년 5월 고산리 소학교 앞에서 촬영된 제20신요대 소속 요카렌의 단체 사진(震洋會, 1990b: 180쪽)

같은 시기에 제119신요대와 120신요대가 주둔했던 서귀포와 고산 지역에도 위안소가 설치되었는지, 혹은 두 부대의 요카렌 생도들이 위안소를 이용하기 위해 성산을 드나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지만, 위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고산 지역에는 요카렌 생도들을 위한 위락시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고 해서, 당시 고산과 성산을 잇는 도로 사정이나 긴박하게 전개됐던 전황을 고려할 때, 그들이 수시로 성산까지 다녀갈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 점에서 위의 ‘여가를 보낼만한 곳이 없어서 불쌍...관계가 대단히 돈독...다른 부대에서는 보이지 않는 관계가 지속됐던 고산 지역의 상황은 성산 지역에 배치됐던 45신요대의 요카렌 생도들과 그곳의 위안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힌트가 된다. 震洋會(신요회)가 1990년에 간행한 두 권의 사진집에도, ‘다른 부대에서는 보이지 않는 관계’를 증명하듯, 120신요대만이 당시 고산리 소학교 앞에서 촬영한 단체 사진을 소개하고 있다<그림 6>. 반면, 제45, 119신요대의 경우는 각각 성산과 삼매봉을 시찰하고 갯도 진지나 주변의 민가를 촬영한 사진만이 소개되고 있다.

16) 震洋會, 『寫眞集 人間兵器 震洋特別攻撃隊 下巻』, 国書刊行会, 1990b, 180-181쪽.

오시종에 의하면 성산 지역 두 곳의 위안소에는 각각 5~7명의 여성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누구이고 어디서 왔을까. 오시종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여자들은 밖으로 잘 나다니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만 생활을 하는지 마을에는 나타나질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뭐, 우리야 알고 있지 일반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지. 당연히 내용도 모르지요. 관리도 다 그 쪽에서만 하니까.

1970년대 오시종은 당시 위안소에서 목격했던 여성을 한 차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

그때 위안소에 있었던 여자 분을 나중에 만난 적이 있어요. 전쟁 끝나고 군대 다녀와서 내가 버스 운전기사를 했는데, 학생들을 태우고 한림 협재굴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분을 다시 만났지. 맨 처음에는 나를 피하다가 나중에 차차 얘기를 듣게 됐는데, 참... 한 사람 한 사람만 상대를 했던 것이 아니고, 하루에 2~3명 될 때도 있고, 5~6명 될 때도 있고..., (내가) 들으면서도 뭐하고..., 말투가 제주도 분인데, 어디서 징발을 당했는지 말하지도 않고... 소라껍데기로 만든 기념품을 좌판에 널어 팔고 있었는데 용모나 행색이 그런 일을 할 분이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한편, 조사 과정에서 면담에 응했던 성산리 주민 모두가 당시의 위안소를 기억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기병(남, 1934년생) 역시 요카렌이 주둔하던 시기에 성산에 살고 있었지만 위안소로 지목된 곳과 먼 거리에 거주했고, 현원조(남, 1926년생)는 전후 성산에 돌아왔기 때문에 위안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그밖에 신영춘(여, 1932년생), 오은자(여, 1929년생) 역시 위안소의 존재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¹⁷⁾ 단지 이들의 기억 속에 요카렌들은 ‘옷을 잘 차려입은, 친절하고 다정했던

17) 이에 대해 한천복(남, 1951년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문제는 우리 삼촌네 윗세대 분들이 거의 안계시다 보니까... 그런데 삼촌네(오시종-필자주) 집은 바로 거기(위안소-필자주) 가까운 곳에 살았으니까 다 봤던 거지요.”

군안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친절했어요. 마을에 좀 배운 처녀들하고는 친절하게 말도 하고 그쪽으로 일 하러 가도 잘 대해주고 못 살게 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과는 다정하게 살았지요. (오은자)

1개 중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민폐가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절간고 구마로 떡을 만들어 주면 잘 먹었던 기억도 있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보급 받은 건빵 같은 것을 우리한테 주고 크게 행패 부렸거나 그런 기억은 없어요. 전쟁 끝나고 4·3때 군인이나 경찰, 서청들이 와서 잔학 행위 한 거에 비하면, 오히려 일본 군인들이 신사였지. (오기병)

Ⅵ. 결론을 대신하여

일본군의 결호 작전은 실패로 끝났다. 미군은 제주도에 상륙하지 않았고, 8만 여명의 일본군은 전투 준비만 하다 철수했다. 죽음을 각오하고 미군 함대와의 ‘결전’을 준비해 왔던 신요대 역시 실전에 투입되는 상황에 이르기 전에 임무가 종료되었다.

종전과 함께, 신요대는 보트에 탑재해 두었던 폭약을 바다 속으로 던져 처분한 뒤, 갯도 진지 옆 해안가에 보트를 모아 소각하였다¹⁸⁾. 그리고 제주도내 전 부대원은 서귀포에 집결, 진해(鎭海)를 거쳐 하카타(博多)로 이동한 뒤 해산됐다. 제45신요대는 188명 전원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119신요대는 신요 보트가 육상에서 폭발하는 사고로 인해 5명이 죽고, 1명이 병사했다. 정비대장 이토 키사크(伊藤喜作) 특무중위(特務中尉)는 자결했다. 종전 직후 제주도에서 자결한 육군 장교는 여러 명 있었지만, 해군은 이토 중위가 유일했다. 120신요대도 191명 중 2명이 신요정 폭발 사고로 전사했다¹⁹⁾.

18) 오시중에 의하면, 제45신요대는 종전 직후 성산을 떠나기 직전에 <그림 1>의 ⑪에서 폭탄을 제거한 신요를 폭파시켰다.

살아 돌아간 신요대는 전후 震洋會(신요회)라는 명칭의 전우회를 조직하여 활동했다. 제45, 119, 120신요대원들 역시 신요회에 소속되어 매년 모임을 가졌고, 그들 중 일부는 제주도를 다시 방문하기도 했다. 특히, 신요회가 1990년에 간행한 『寫眞集 人間兵器 震洋特別攻撃隊』(사진집 인간병기 신요특별공격대)에는 요카렌 전우회 멤버들이 전쟁 중에 주둔했던 지역을 찾아가 회상하는 내용이 각 부대별로 기록되어 있다. 제주에 주둔했던 3개 부대도 기록을 남겼다. 직접 제주를 방문해서 과거 자신들이 주둔했던 지역을 답사하고, 신요정을 숨겨 놓았던 갯도 진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기록을 작성했다. 특히 ‘다른 부대에서는 보이지 않는 돈독한 관계가 지속됐던’ 120신요대 소속 요카렌 생도와 그들의 가족 19명은 1987년 10월 고산 지역을 다시 찾았고, 차귀도가 보이는 포구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²⁰⁾

제주도에 일본군 위안소가 존재했다는 조사 결과나 연구가 아직 학계에 발표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의의는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만난 성산 주민 6명 가운데서도 위안소의 상황을 목격하고 그 곳의 여성을 직접 만난 것은 오시중이 유일하지만, 그의 증언은 수차례의 인터뷰와 현지 조사, 그리고 일본측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도 확인되듯이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기록과 기억 사이에는 심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다. 때문에 오시중의 기억과 목격담을 보강해줄만한 새로운 증언자를 더 찾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불균형적 상황에 균열을 일으키기 위해 앞으로의 연구는 전쟁 말기 성산의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발굴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거기에는 주민 뿐 아니라 성산에 주둔했던 요카렌 생도 혹은 그 유족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사료 발굴도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1987년 요카렌

19) 奥本剛, 『陸海軍水上特攻部隊全史—マルレと震洋, 開発と戦いの記録』, 潮書房 光人新社, 2013, 112쪽.

20) 震洋會, 『寫眞集 人間兵器 震洋特別攻撃隊 下巻』, 国書刊行会, 1990b, 181쪽.

전우회가 제주를 방문한 뒤 남긴 기록과 1990년에 간행한 앨범이 유일하다. 전우회 조직의 특성상 커뮤니티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소식지나 문집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파편적인 단서들의 조각을 맞추는 작업에 유용한 매개가 될 것이다.

일본 본토를 비롯한 부속 도서, 중국, 대만, 마닐라, 필리핀, 보르네오 등 일본의 제국권에 신요대가 어떻게 주둔했었는지, 또 위안소가 어떠한 양상으로 존재했었는지에 대한 비교 연구도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전쟁이 끝나고 살아 돌아갔던 요카렌 병사들은 젊은 시절 목숨을 내걸고 특공대원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주둔했던 제주도를 어떻게 기억해 왔을까. 그들에게 기지 주변의 주민들, 특히 위안소에서 만났던 여성들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었을까. 남은 과제는 이러한 의문을 해소시키는 작업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성산리 마을회, 『城山浦誌 해뜨는 마을』, 2004.
- 이완희, 『한반도는 일제의 군사요새였다』, 나남, 2014.
- 조성운·지영임·허호준, 『빼앗긴 시대 빼앗긴 시절-제주도 민중들의 이야기』, 2007, 선인.
- 조성운 편, 『일제하 제주도 주둔 일본군 군사유적지 현장조사 보고서 I』, 보고서, 2008a,
- _____, 『일제말기 제주도의 일본군 연구』, 보고서, 2008b.
- 조성운, 「알뜨르 비행장-일본 해군의 제주도 항공기지 건설과정」, 『탐라 문화』 41호, 2012.
- 제주역사문화진흥원, 『일제 동굴진지 등록문화재 종합 학술조사 보고서 [I]-제주시권-』, 2008.
- _____, 『일제 동굴진지 등록문화재 종합 학술조사 보고서 [II]-서귀포시권-』, 2009.
- _____, 『제주도 일제 군사시설 전수 실태조사[I]-제주시洞지역권-』, 2011.
- _____, 『제주도 일제 군사시설 전수 실태조사[II]-서귀포시권-』, 2012.
- _____, 『제주도 일제 군사시설 전수 실태조사[III]-제주시읍면지역권-』, 2013.
- 震洋會, 『寫眞集 人間兵器 震洋特別攻撃隊 上卷』, 国書刊行会, 1990a.
- _____, 『寫眞集 人間兵器 震洋特別攻撃隊 下卷』, 国書刊行会, 1990b.
- 奥本剛, 『陸海軍水上特攻部隊全史-マルレと震洋, 開発と戦いの記録』, 潮書房光人新社, 2013.
- 第五十六震洋隊隊員有志, 『海軍水上特攻隊 震洋-三浦市松輪にあった第五十六震洋隊岩館部隊の記録』, 元就出版社, 2004.
- 子科練平和記念館, 『子科練平和記念館年報』 第1号, 2012.

ABSTRACT

Yokaren soldiers and military brothels at the end of the Pacific War

—An Exploratory Study on Sung-san Area in Jeju—

Cho, Sung-Youn^{*} • Koh, Sung-Man^{**}

The number of the Japanese army had been increasing on Jeju island since the spring of 1945, the last stage of the second World War. As the battle on the land of Japan set into full swing, the weapons and troops were concentrated into Sung-san, geologically the closest to Japan, with the escalation of military tension.

This study aims at demonstrating military facilities constructed in Sung-san by the Japanese Navy, by conducting the field survey, interviews of witnesses, and analysis of historical records.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nineteen places of military-related facility in total are figured out in Sung-san, while two of them were used as brothels for Japanese troops. The existence of the brothel facility is confirmed by a testimony of Oh Shi-jong, a resident of Sung-san. He still clearly remembers the scene even though it has passed 70 years that Japanese soldiers belonging to 'Yokaren Unit', dressed up with seven buttons-on fancy military uniform, were waiting in line in front of the building.

In our humble opinion, any study or research that the brothels for the Japanese army were existed in Jeju has not been made public in the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Jeju National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Jeju National University

academic world. For that reason, this study leaves task that additional inquiries into people who remember the condition of Sungsan at the end of the Pacific War should be continued. Furthermore, a comparative study on how the brothels were operated in the region stationed by 'Yokaren Unit' under the control of the Japanese Empire is required.

Key-words: Yokaren, Shinyo, Sung-san, military brothel

논문투고일: 2019.05.10.

심사완료일: 2019.05.29.

게재확정일: 2019.06.04.

K C I